



이종국 | 혜천대학교 전자출판과 교수 · 한국출판학회 회장

1963년 11월, 남에 안춘근(1927~1993) 선생이 '출판학'이란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이래 올해로 꼭 40년째에 이른다. 그동안 출판연구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그런 가운데 출판학을 영역의 교수·학습대상으로 삼아 여러 대학들에서 학과로 수용하여 전문인력을 기르고 있다. 비록 출판학과를 설치한 사례가 소수에 지나지 않지만 매년 1,200명 정도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만큼 발전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닐 것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는 1966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출판학과를 설치(또는 증설을 포함하여)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을 대통령과 국회, 정부요로 등에 건의·진정해 온 바 있다. 또 한국출판학회의 경우 대학에서의 출판학과 설치문제를 최대 역점사업 중 하나로 꼽을 만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터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1981년에 마침내 대학에서의 출판교육이 실현을 보게 되어, 올해로 22년째에 이른 셈이다.

그 사이 좀더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 20세기의 정리기간인 지난 20년 동안에 급변하지 않은 게 없지만, 출판 패러다임의 변화야말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급물살을 탔다. 따라서 빌 게이츠와 '무어의 법칙'이 키워드를 장악하게 되면서 디지털, 인터넷, 네티즌, 하이퍼 테크놀로지 등, 그리고 건똥하면 들먹이곤 하던 '정보'란 단어가 무수하게 오르내렸다. 그저 단순한 보통명사일 뿐인 '정보'라는 어휘는 기묘하게도 디지털이나 전자통신 등 일련의 전자적인 방식 또는 그와 비슷한 동의어로 사용되어 대중적 언어기호를 바꿔 놓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각 대학들에서의 수많은 학과명칭에 '정보'란 말을 덧붙이는 등 엄청난 과급세를 보여 주었다. 그래서 세상이 온통 정보·전자이데올로기 속에 갇혀 있는 듯했다. 또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지배적인 상황이기

도 했다. 청소년들은, "도대체 책이 뭐하는 거지? 가자, 게임방으로" 그렇게 '반란'한 그들의 PC방 풍경은 언제 탈 것 없이 노랑게 지새워지고 있었던 것이다.

최근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한국의 인구 1백 명당 PC보급률은 47.9퍼센트이며, 이를 기반으로 한 이동통신 가입자가 61명이라고 한다. 이는 PC의 경우 유럽에서 가장 보급률이 많은 영국의 36.6퍼센트에 비해 13.1퍼센트나 앞선다. 그런가 하면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1위이다. 2002년 말 현재 가입자는 무려 1천 40만 명을 넘겨, 놀랍게도 전체가구 중 70퍼센트 임이 밝혀졌다. 게임산업은 어떤가? 한국은 온라인 게임분야에서 미국에 이어 2위, 모바일게임 분야 3위를 기록하는 등 기염을 토하고 있다. 정말 대단한 성공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한국은 세계 최상위수준의 '전자공화국'으로 떠오른 셈이다. 여북해야 한 보수지향적인 언론도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고 독려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쯤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 요컨대 정보의 주된 기반이 무엇인가에 관한 상식적인 질문이 그것이다. 물론 이에 대하여 단답형식 대답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책과 책의 출판행위가 오늘의 정보화사회를 만들었고, 그 기계 메커니즘까지 세웠다. 당연한 결론이 그것이다. 이는 굳이 역사를 증거하지 않더라도 널리 보편한 확고한 인식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과 출판을 낙후된 미디어로 보려는 시각 또한 만만치 않은 것 같다. 만일 그와 같은 생각에 지배당한다면 매우 중대한 오해를 낳을 소지가 많다. 요컨대 오늘의 침예한 디지털매체들은 결국 책과 출판이 진화·팽창된 현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사학자 아이젠슈타인(Eisenstein, E. L.)은 "오늘날 서구문명의 기반을 형성케 한 유럽사의 전개도 하나의 변

용요인(an agent change)으로 작용한 출판으로부터 밀 뿌리 한다”고 명료하게 지적한 바 있다. 새삼스럽지만 기억해 둘 말이다.

이 같은 일련의 이해에 깔려 있는 기본은 여전히 출판의 중요성과 출판교육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는 데 있다. 출판교육은 곧 좋은 출판매체를 창출하고 이용하는 데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균형 있게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한 사회적 요구로서 실천적인 대상이다. 그럼에 있어 양질의 출판물을 생산하려 부단히 노력한다는 것은 출판교육이 지향해야 할 변함없는 원론이요 가치관이라는 사실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어떨까? 22년을 살아온 청춘의 나이(출판학 교육이 진행되어 온 나이)임에도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반적인 입시자원(고3학생)의 감소현상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책과 출판현상에 대하여 학습하는 것’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탓이다. 엔터테인먼트 관련학과가 넘쳐 있고, 영상정보 분야가 캠퍼스를 장악하고 있는 마당에 출판학과는 힘겨운 버티기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이 대학 저 대학들에서 ‘가수학과’, ‘텔런트학과’가 거듭 증설되고 있는 판이니, 한국은 그야말로 세계제일의 연예왕국이 될지도 모른다. 교육정책이 문제인가, 대학당국의 과제인가, 아니면 닐 포스트만(Neil Postman)의 명제가 말해 주듯이, ‘교육의 종말(The End of Education)’을 시사하는 어떤 미묘한 시대적 시류의 도래함인가?

이럴 때, 출판계와 출판의 의의를 기리는 모든 사람들이 출판학교육의 현재와 발전적인 장래문제를 심각하게 따져봐야 한다. 아주 평범한 견해이지만 힘을 불어 넣자는 주장이다. ☞

(사)한국출판학회(회장 이종국)는 출판과 관련한 여러 분야의 역사·현상적인 면을 연구하여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고 과학화함으로써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69년 4월 설립되었다. 올해로 설립 34주년을 맞는, 명실공히 출판문화와 출판학의 산실이다.

출판학회의 주요사업으로는 학술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학술지 및 도서의 간행, 출판문화 진흥을 위한 산학협동, 국내외 관련학계 교류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학회창립 당년(1969)부터 만들어진 <한국출판학연구>는 올해로 통권 45호를 맞는데, 출판학연구에 있어 전문적인 이해를 돕고, 출판계의 전망을 밝힌 출판학의 ‘역사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출판학회는 1972년 한국출판학회상을 제정하여 출판문화와 출판학의 발전을 위해 힘쓴 인사(단체)를 선정, 포상하고 있다. 활자전형(活字字形)의 제작에 일생을 바쳐 출판·인쇄문화에 발전적인 기여를 한 자형설계가(字形設計家) 최정호 씨가 그 첫회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언론인, 출판단체, 출판·편집디자이너 등 각계분야에서 우수한 출판단체와 인재들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출판정론지 <출판저널> 역시 1989년 한국출판학회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국출판학회는 지금까지 100여 회의 대내외 학술세미나를 개최했으며, 1984년에는 학회의 주도로 서울에서 한·일 양국 공동출판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국제출판학술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의, 지금까지 그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한편 한국출판학회는 지난 2000년 12월 학회의 30년사를 정리하는 <한국출판학의 사적연구 : 한국출판학회 30년사>를 냈다. 일반적으로 전문학회가 학회사를 내는 경우는 드문 일인데 이 학회사는 중요한 자료로 국내외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한국출판학회는 출판과 관련된 심도 있는 조사, 연구를 거듭하는 가운데 국제화시대의 출판연구와 학적·인적 교류사업을 적극화하며 독보적인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